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논문집

복음과 상담

제 4 권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www.kci.go.kr

복음과 상담 제4권 2005

2005년 5월 26일 1쇄 발행

펴낸곳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홈페이지 www.evangelcounseling.com

편집인 황규명, 김준수, 전요섭, 안경승, 강경미

등록 1998. 6. 26. 제 10-1609호

인쇄처 보라컴

전화 (02)2266-7628

편집디자인 박현, 신지윤

표지디자인 강은아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3-1(1층)

값 15,000원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논문집 제4권

복음과 상담

주제 : 기독교 상담과 직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www.kci.go.kr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 권두언

황규명 - 새로운 도약을 바라보며 6

■ 기초논문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8
황규명(D.Min., 총신대학교교수)

■ 주제발표논문

직면과 '아가페 상담' 29
김태수(Th.D., 천안대학교교수)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의 사용 68
한숙자(Ph.D., 한영신학대학교교수)

■ 주제연구논문

상담의 직면과 거짓자아 103
김준수(D.Min.,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

기독교 상담에서의 공감과 직면 132
김수연(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

직면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상담자의 준비 155
안경승(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

기독교 상담에서 직면의 역할과 적용 178
강경미(Ph.D., 그리스도대학교교수)

■ 자유주제논문

효과적 종결방안에 관한 기독교 상담 204

전요섭(Ph.D., D.Min., 성결대학교·교수)

글쓰기 고백을 활용한 내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226

김영근(D.Min.,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이혼율 감소를 위한 미래적 대안에 관한 연구 263

심수명(Ph.D., D.Min.,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 자유주제연구논문

가정폭력 원인으로서의 분노 상담 290

윤석주(Ph.D.cand., 성결대학교)

단기 상담의 이해와 목회 상담적용 310

박기영(Ph.D.cand., 성결대학교)

성경적 상담전도법의 이론과 실제 337

윤홍식(D.Min., 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 부록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앙고백서 373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회칙 374

학회지 “복음과 상담” 논문발표 및 게재, 편집규정 378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감독, 전문상담사 명부 382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개인회원 명부 384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회장 황규명(D.Min.,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기독교 상담학회가 지난 2003년 봄에 한국복음주의신학회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학회로 시작 된지가 3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주의적인 상담자로 연합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였고 다양한 일들을 지혜롭게 계획하게 하였고 어려운 일들은 현명하게 풀어나감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잘 준비된 분들을 만나서 순탄하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을 돌이켜 보면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던 헌신적인 임원교수님들에 의해서 초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상담을 목표로 저희 학회에 가입된 상담기관이 4곳이고, 현직 교수님들로서 이일에 동참하시는 감독 상담사가 21명이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각 대학 강사이상으로 전문 상담사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3명이 계십니다. 또한 저희 상담학회의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2급은 88명, 3급은 65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준비 중인 일반 회원분이 600여명이 계십니다.

특히 올해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학회 소속 감독 상담사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가정사역” 교재와 상담에 유익한 번역 서적출간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상담 사역기관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교회 상담실 3곳이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저희와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더욱 힘과 뜻을 모아 주님의 일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인 상담활동의 학문성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1대 회장님이신 김준수 교수님과 2대 회장님이신 전요섭 교수님에 이어 학회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학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는 것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감독상담사 교수님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 주셔야 합니다. 수준 높은 논문과 학문성 있는 연구로 복음주의적인 상담이 세속화된 모든 상담영역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담요원의 훈련과 준비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2003년부터 꾸준히 상담사자격증을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각 대학, 기관에서 훈련된 상담요원들을 온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고사를 시행하고 실제적인 상담실습의 필요성과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요구함으로써 온전한 상담요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상담기관 회원들을 영입 추진하여 더 많은 상담실습과 사역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셔서 일반회원 분들의 더 많은 참여와 연합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신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와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마음이 어두워지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상을 미리 발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와 신자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좋은 상담교재를 준비하고 세미나 및 교육활동을 통해서 상담의 필요성을 계도하고 계몽하여 장래에 미칠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선각자적인 상담자가 되어 지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일치단결하여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욕심과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학회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셔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원고를 제출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출판과 편집 및 기타 전반적인 활동에 애써주신 부회장 안경승 교수님과, 총무 강경미 교수님, 그리고 사무국장 윤홍식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05년 5월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황규명(D.Min., 총신대학교·교수)

I. 여는 글

직면(confrontation)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상담에 있어서는 하나의 상담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David G. Benner의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베이커 심리학백과사전」에는 직면에 대해 “상담자가 어떤 논점을 가지고 내담자와 대면하여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것은 보다 소극적 간섭인 해석, 반영, 재진술(restatement)과는 다르다. 직면을 할 때에 상담자는 일방적 관찰을 제공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해석(interpretation)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다. 직면이 효과적이 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신뢰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심리 치료학파에 따라 직면의 역할은 다양할 것이나 좀더 지시적, 적극적 치료방법을 쓰는 학파가 상담의 기법으로서의 직면을 더욱 옹호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직면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한다고 대부분 주장한다.¹⁾

David R. Evans 외 3인이 공저한 *Essential Interviewing* 「상담의 필수기술」에서는 직면을 “내담자 스스로 자기 말과 행동의 모순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 이라고 정의한다.²⁾ 임시적이고 비심판적인 표현의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그 모순을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러한 직면은 효과적 경청과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에 근거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직면의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구체적 모순점(행동에서, 말에서, 말

과 행동 사이에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든다. 효과적 직면을 통해 종종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하여 건설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방금 전 비싼 옷을 샀다는 말을 한 내담자가 이번 달 집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상담자의 직면은 “제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좀 전에는 비싼 옷을 샀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집세 내는 게 걱정된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돈 관리하는 게 힘드신가 봐요?” 가 될 수 있다. 내담자 말 속의 구체적 모순점을 임시적이고 비심판적으로 표현한 직면이다.

둘째, 효과적인 직면을 하는 상담자는 솔직한 의사소통의 본보기가 된다. 상대가 상처를 입을까봐 혹은 두 사람 관계가 나빠질까봐 직면 사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와 정반대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별을 주거나 양갈음을 하기 위해 직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직면을 받으면 내담자는 다른 행동방식을 생각해 봐야 하고, 그 결과 써보지 않았던 자원들을 활용해 보게 된다. 직면할 때는 행동과 말의 모순점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그 모순점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다.

넷째,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직면을 사용해야 한다. 충분한 신뢰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직면은 자주 내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직면을 받으면 내담자는 괴로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다섯째, 흔히 내담자는 임시적이고 비심판적인 표현으로 말한 직면을 더 잘 받아들인다. 임시적인 표현의 직면은 종종 “~일까요?” 혹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 같은 표현으로 된 말이다.

여섯째, 직면을 하는 동안과 한 후에 내담자 감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담자가 언급한 모순을 직시할 때 힘들어하는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직면에 종종 포함된다.

일곱째, 직면은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에 근거해야지 추측한 정보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직면 내용에는 비난, 평가 또는 문제 해결책이 들어가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면하여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상대의 결점과 한계뿐 아니라 장점과 저력에 관련된 모순점도 직면

할 수 있다. 상담자는 언제 직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는 말과 행동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직면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내담자는 자기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변명을 찾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그냥 자기 행동을 사과한다. 상담자는 직면을 통해 이런 방어 전략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또한 내담자의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들어맞지 않을 때, 비현실적 목표를 가진 내담자를 직면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때 직면을 사용할 수 있다.³⁾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의 직면의 예로서 위와 같은 이론과 방법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은 이와 같은 일반적 직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람은 원래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 받을 문제들이 그 죄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직면은 반드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물론 정죄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또한 변명과 자기합리화를 하기 쉬운 인간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도 율법적 추궁보다는 사죄의 은총을 소개하는 복음의 위력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상담할 때에 사용하는 직면은 일반 상담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성경적 특성이 있음을, 특히 복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기독교 신자의 상담의 목적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은 “기독교 상담에서 직면은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직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다.

II. 펴는 글

1. 직면에 대한 성경적 근거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직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직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성경구절이 많이 있지만 우선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해보겠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5-18).”

히브리어 원어에서 ‘책선하다’의 의미는 ‘바로잡아주다’ 혹은 ‘교정하다’라는 뜻이다. 형제 중 하나가 범죄했을 때 그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태만히 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서로 우애하며 권면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잠 27:9; 마 5:13-16).⁴⁾

직면이란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근거한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고 가르친다. 또한 레위기의 구절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직면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서로 죄에 대해서 직면해주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면은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에 근거한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말한다.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 침묵으로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

이 있는 자들은 비록 갈등을 야기하고 불편한 시간을 만들지라도 분명히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으로 시작된다. 상담이론들은 이론적인 근거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제하고 그들의 이론을 펼쳐나간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이 신뢰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다.⁵⁾

레위기에서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해 책선하라고 했다. 이 말은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책선하라는 뜻이다. 미움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방의 언행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 아닌 정당한 판단에서 이웃의 잘못을 책선하고 그 사람이 그 책선을 받아들이면 미움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책선을 게을리 하면 미움은 점점 더 커져 마침내 그 사람의 전인격을 파탄시킬 것이다.⁶⁾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라고 했다. 여기에서 권면이란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 단지 문제가 생길 때에만 나타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직면을 인간관계의 깊은 유대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고리이며 상호교류의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차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그 문제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여 처리하라고 한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매 순간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죄의 확장은 억제되고 영적인 성장은 더욱 고무된다. 레위기에서의 모범은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성숙과 신앙생활의 점진적인 성화의 모델을 보여주는 데 매우 적합하다. 또한 문제가 비극적 결말로 끝맺어지기 전에 아직 시작단계에 있을 때에 발견되고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직면을 하는데 있어 상담자는 무례하고 정죄하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권면하는 사람’ 과 ‘그의 이웃’ 이라는 두 가지 계급의 사람들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 권면을 받게 될 수 있고, 그 이웃이 반대로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 사

람의 ‘이웃’ 으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주시는 권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역시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역시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이 죄인을 돕는 것이다.⁷⁾

기독교 상담에서 직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말씀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 직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직면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

2. 직면의 방법과 상담자의 자세

사랑으로 직면하라는 말은 내담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랑의 직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깨닫는 것에 근거한다. 그리고 상담자의 목표는 내담자를 위한 그분의 목표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누구인가를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직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니라, 그와 그리스도이다. 권계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얻고 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직면은 율법주의를 더욱 강화시키지 않는다. 직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간 누군가에게 다시 그분의 강권하시며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사슬에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로써 내담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유로움을 알게 된다.⁸⁾

따라서 상담자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넘어서 이 내담자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홀연히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자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생각해보자. 바울의 만류에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30절)?” 라고 질문했다. 이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31절)” 였다. 여기에는 초점의 전환이 있다. 즉 육체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간수에게 바울은 영적인 구원을 말해주면서 그 눈의 어두움을 씻어주었던 것이다. 내담자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것이다.9)

만약 상담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되려고 한다면 먼저 상담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생각이나 동기나 태도(자기의, 분노, 고통,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원한) 등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구로서 상담자는 지금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 상담자는 그분을 잘 나타낼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랑과 용기와 긍휼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준비 단계는 대개 무시되고 만다. 그 결과는 직면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응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상담자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갖게 될 것이다.

1) 섬김의 시간 분노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태도에 적절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상담자의 말은 상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상담자의 분노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다.

2)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것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됨

만약 상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수평적인 의미에서 상담자에게 거슬리는 요소들은 내담자의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상담자는 점차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민감해질 것이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단지 내담자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안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3) 상담자의 접근이 적대적이 됨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것을 개인적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즉시 그 뒤를 따라 발생한다. 상담자가 더 많이 상처 받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할수록 상담자는 그 상처 준 사람을 대할 때에, “함께 나란히 서있는” 자세보다는 “서로 대치하고 서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는 자신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내담자에게 원수처럼 행하게 된다. 결국 상담자는 위대한 상담자께서 하시려는 일에 방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4) 하나님의 뜻과 상담자의 의견 혼동함

직면에서 내담자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상담자의 의견이다. 내담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 즉 내담자의 내면과 주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상담자의 할일은 내담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자신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과 같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5) 마음 다루지 않는 졸속한 해결책으로 만족함

상담자가 자신의 죄악 된 태도에 대면하지 않는다면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사역도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성격을 점차 잃어가면서 반대로

다른 태도의 성격을 점차 갖게 될 것이다. 더욱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열의가 사라져 갈 것이고, 계속해서 그 상담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만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견뎌야겠다는 마음 대신에 내담자가 귀찮아지고 그 관계가 무거운 짐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는 빨리 상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졸속하고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의 반응은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 대한 사랑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위대하신 상담자이신 주님께서 상담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담자를 사용하셔서 상담자가 성장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겸손하게 깨달아야 한다. 상담자 자신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변화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¹⁰⁾

위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설적인 방법으로 직면하지 않고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인류의 타락이 미친 비극적 영향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죄악성 때문에 자신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소경과 같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은 언제나 두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첫째, 자료수집의 과정을 통하여 상담자가 성경적 상담으로 내담자를 돕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더욱 근본적인 목표는 상담자가 오랫동안 눈 먼 상태에 있던 내담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메시야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역은 메시야 사역의 핵심이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야를 대망하면서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사 35:5)” 라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사 42:16)” 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분부하시기

를, 죄의 흑암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다. 상담의 목표는 인간관계나 상황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어두움을 드러내어 복음을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다.¹¹⁾

3. 직면의 절대적 요소인 복음

일단 상담자가 마음을 준비하고 나면 내담자를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담자의 겸손하고 사랑에 풍성하며 정직한 권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담자들에게 왜 직면 받는 것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 것이다. 그 대답을 통해 상담자는 적절한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직면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죄가 계속 존재하는 한 스스로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서로 권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고 과장되며 변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과거와 현재를 정당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3)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 4)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법에 관한 인생관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곤 한다.

내담자는 영적인 무지함과 죄악 된 욕구,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내가 옳았다고 고집하면서 매번의 새로운 상황을 해석할 것이다. 그는 인생관의 왜곡된 부분을 깨닫게 하고 교정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첫째, 목표는 내담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도구로서 사용되고자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스스로 바라보도록 돕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둘째, 목표는 회개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회개의 성경적인 정

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마음의 변화이다. 요엘 2장 12-13절까지는 이점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구약의 문화에 있어서 자책하는 외견적인 행동), 마음을 찢는(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으로 느끼는 참회)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들이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회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한 전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¹²⁾

내담자는 자기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며 그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복안을 인식케 하나? 상담 중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내담자가 사용하는 말, 칭호, 문구, 범주 등을 사용해서 본인이 듣게 한다.
- (2) 복안에 관한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행동을 주의하여 관찰한다.
- (3)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함의된 복안에 관해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한다.
- (4) 내담자가 살펴보고 해석할 수 있는 간단한 사례 연구를 제공하여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 (5) 내담자의 복안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을 요약, 내담자에게 반응을 보일 기회를 준다.

또한 숙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내담자를 성경으로 인도하며 사물을 성경적으로 보게 한다.
- (2) 내담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게 하고 자신을 성경적으로 보게 한다.
- (3)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한다.
- (4) 상담 중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마음의 결정적인 주제를 세밀히 살피게 한다.
- (5) 내담자가 상담을 '일시적 즉효약' 으로 여기는 것을 방지한다. 오히려

상담을 하나님의 성화 과정의 일부로 보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목표는 상담자가 말하는 것(메시지)과, 상담자가 내담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상담방법)과 그리고 상담자가 나타내는 태도(성격)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기가 누군가를 회개로 인도하려고 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롬 2:4), 인간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선하심)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였다(고후 5:14). 복음의 은혜는 인간들의 마음을 돌리게 한다. 그 이유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숭고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들을 숨어 있는 어둠에서 이끌어 내어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다. 그곳에서 진정한 고백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

상담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신분을 내담자들에게 일깨워야만 한다(벧후 1:3-9; 요일 3:13). 또한 내담자들에게 용서의 분명한 약속에 관한 확신을 잊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요일 1:5-10).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엡 3:20).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러한 진리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만약 상담자가 회개의 사신이 되어서 말을 한다면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도 함께 심어주어야 한다. 내담자들은 복음의 위로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계속 일깨워져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복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내담자를 일깨워야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죄와 싸우기 위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신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 이끌려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의 지배 하에 있지 않다.

복음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직면과 권계) 삶을 정착시킬 때에 상담의 목표는 복음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상담자는 변화를 위한 진정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용서와 능력의 약속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자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복음의 명령이 필요하다. 위로의 소망과 부르심의 명령을 둘 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직면의 진실한 말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복음의 진실이라는 빛 가운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엄위를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있고 신앙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상담사역에서 상담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보면 복음의 한 쪽 면을 다른 한 쪽 면보다 더욱 강조하게 되기가 쉽다. 예를 들면 만약 수년 동안 자신의 아내를 언어적인 면에서 괴롭혔던 남자와 상담한다고 했을 때 복음의 명령을 복음의 위로보다 더욱 강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남자에게 자신의 행한 일을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위로이다.

반면에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에 어찌면 복음의 명령은 제쳐두고 복음의 위로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로 인해 생겨났지만, 나중에는 강력한 죄의 유혹이 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자기 의와 복수심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명령이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음의 양면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복음의 두 가지 속성(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상호보완적이어서 서로를 온전하게 만든다.¹³⁾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이며, 중생이나 회심 같은 갱신 행위나 과정이 아니다. 칭의는 죄인과 관련되지만 내면적 삶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칭의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호의의 회복을 포함한다. 칭

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죄인에게 회복시킨다.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며,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한다.
- (2)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판결이 주관적으로 적용되지만, 내적인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반면 성화는 인간의 내면적 삶에서 일어나고, 점차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 (3) 칭의는 한번 일어난다. 칭의는 반복될 수 없으며, 과정일 수도 없다. 이는 단번에 완성된다. 칭의에는 정도차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완전히 칭의 되든지 전혀 칭의 받지 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화는 지속적 과정이며 현세에서는 완성될 수 없다.
- (4) 양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로적 요인으로 가지지만, 그 동인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를 간단히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를 성화시키신다.¹⁴⁾

칭의의 은혜는 내담자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용서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아직 그 인격과 성품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였으므로 그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감으로써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화는 율법의 요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에게 복음으로 직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며, 단순히 책임 추

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내담자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4. 직면의 과정으로서의 회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심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시편 32편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윗은 고백과 용서를 통한 행복에 대해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고백하기 전의 고통에 대하여 말하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시 32:3-4).”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다. 5-7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다. 죄의 고백은 에덴동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죄의 유형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깨끗함과 용서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다.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고백 개념은 성경적인 상담의 결정적인 요소이다.¹⁵⁾

상담자의 목표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처벌내용들을 읽어 주거나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상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를 원한다. 다음의 네 가지 단계는 직면의 과정을 형성한다.

1) 고려

상담자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보지 못

하고 있지만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그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인생과 진리와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직면의 초점을 새롭게 세울 수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내담자의 고민들을 서로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들은 상황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생각과 소원과 선택과 행동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내담자들이 당면하는 상황이 나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내담자들의 눈을 잠시 상황으로부터 거두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묻는 것이다.

셋째, 당신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행동이 단지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이어서 제시된다.

넷째, 왜 당신은 그 일을 했는가? 당신은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하였는가? 만약 두 번째 질문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질문은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그 반응의 결과(갈 6:7)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마음의 생각과 동기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고백

이것은 직면의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계이다. 만약 사람들이 성경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고백되어야 하는 마음과 행동의 죄를 발견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진실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과거를 재해석하며 엉뚱하게 둘러대며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더 비난하며 수동적이 되고 논쟁하려 들며 합리화하거나 혹은 숨기려고 든다. 그러나 고백은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쉽사리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상담자의 직면의 말이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대치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그렇지만’ 이라든지 ‘만약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식으로 고백의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고백은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며 잘못된 이상숭배가 죄 된 행동의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게 한다.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해서 더 깊고 온전한 경배에 이르는 것이다.

3) 결단

고려와 고백은 직면 과정에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림’의 의미를 갖는다. 결단은 회개에 있어서 ‘새사람을 입음’의 첫 번째 단계적인 의미를 갖는다. 성경적인 결단이란 자신에게 해가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좀더 나은 행동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단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상숭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러한 유형의 표면적인 결단을 물리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자 하신다(사 1:10-20, 29:13; 마 23).

4) 변화

직면의 목표는 개인의 통찰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바로 변화이다. 통찰과 결단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통찰과 결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야만 한

다. 결단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변화는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¹⁶⁾

상담자는 상담을 위한 복안, 또 하나님이 내담자에게 분정하신 상황에서 그를 위한 분명하고 성경적인 복안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복안을 직면을 통해 내담자의 복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잘 따라오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내담자의 참여도와 열심
- (2) 내담자의 지속적인 자기 연구와 자기성찰
- (3) 내담자의 상담 외의 적용사례 간증
- (4) 내담자의 통찰력 적용이 삶의 다른 영역에 미침
- (5) 내담자가 새로운 성경적인 복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
- (6) 하나님께 대한 새로워진 감사와 찬양

III. 맺는 글

모든 변화가 직면과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지혜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한 변화야말로 내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성과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비록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지금 구원받은 것은 칭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생의 모든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직면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시편 32편 후반부에서 다윗은 용서 받은 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자기의 경험을 상담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 32:8).” 라고 말하고, 또 그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역시 다윗의 말로 이 구절들과 병행되는 구절임을 알 수 있다. 다윗은 용서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며, 특히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여 돕는 것이다.¹⁷⁾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신앙생활, 혹은 교회사역과 동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사역이다. 그러므로 그 맥락을 떠나서 상담을 해주거나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은 신학과 무관하지 않고, 상담의 방법으로서 직면은 필수적이며 그 직면의 핵심은 복음이다.

참고문헌

- 호크마 종합주석. 「레위기」. 서울: 기독지혜사. 1989.
-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자료수집과 분석.” 개혁신학회 논문집. 「개혁논총」 제2권(2004).
- Evans, David R. Hearn, Margaret T. Uhlemann, Max R. Jvey, Allen E. Essential Interview. 성숙진 역. 「상담의 필수기술」. 서울: 나남출판, 2004.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2001.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외 공역. 「조직신학 하」. 서울: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2002.
- Paul Tripp, Paul. “Opening Blind Eyes: Another Look at Data Gathering.”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vol. 14. 1996.
- G. David. Baker Benn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confrontation."

각주

- 1) David G. Benner,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confrontation."
- 2) David R. Evans, Margaret T. Hearn, Max R. Uhlemann, Allen E. Jvey, *Essential Interview*, 성숙진 역, 「상담의 필수기술」 (서울: 나남출판, 2004), 175.
- 3) Evans. Hearn, Uhlemann, Jvey, 176-88.
- 4) 호크마 종합주석, 「레위기」 (서울: 기독지혜사, 1989), 336
- 5)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2), 200-02.
- 6) 호크마 종합주석, 346.
- 7) Tripp, 202-4.
- 8) Tripp, 207-9.
- 9)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자료수집과 분석,” 개혁신학회 논문집, 「개혁논총」 제2권(2004), 179.
- 10) Tripp, 209-211.
- 11) Paul D. Tripp. “Opening Blind Eyes: Another Look at Data Gathering,”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vol. 14, (1996): 6.
- 12)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211-3.
- 13) Tripp, 213-7.
- 14)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외 공역, 「조직신학 하」 (서울: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2002), 765-6.
- 15)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2001), 170-1.
- 16) Tripp, 223-31.
- 17) Adams, 175.

Abstract

Confrontation and Gospel in Christian Counseling

Wang Kyu Myeoung(D.Min.)

Confrontation is an active intervention tool by which the counselor brings a counselee into face-to-face contact with an issue. In Christian counseling, the main issue is about the sinfulness of human heart. The problem is the most human beings don't like to be dealt with their sinful heart. If counselors give up confronting the heart issue, the real change will never come. Modern Christians replaced love in relationships with being nice. We must speak the truth in love.

We must confront but we must do it biblically. Biblical confrontation means starting with the counselor's own heart. Counselors must examine if there are thoughts, motives, or attitudes (self-righteousness, anger, bitterness, spirit of condemnation, vengeance) that would get in the way of God intends to do. Christian counselor's job is to hold the mirror of the Word of God in front of counselee so that he can see himself accurately.

A mistake counselors often make when they confront sinful hearts and lead them to repentance is to emphasize the law over the gospel. However, it is the grace of the gospel that turns our hearts, because the gospel is God's magnificent promise of forgiveness in Christ. We need both, the grace of justification and the grace of sanctification. Christian counselor must confront counselee with the gospel of Christ. Even for the Christian counselee, the renewal of his relationship with Christ in every aspect of life is essential.

Key Words: confrontation, gospel, heart, repentance, grace.